

강인규 vs 김대동...전·현시장 맞대결

6·13 지방선거 표발 점검



■ 나주시장

나주시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강인규(63) 현 나주시장을, 민주평화당은 김대동(72) 전 나주시장을 각각 내세웠다.

두 후보자 모두 나주시장을 지냈다. 강 후보자는 정책공약 중심의 선거전략을, 김 후보자는 검증된 인물론을 각각 강조하며 세몰이에 나서는 분위기 속에 지역 정치권은 민주당 소속의 강 후보자의 지지세가 견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강인규 후보는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다. 반남 농업조합장, 나주시의회 의원, 나주시의회 의장, 민주당 전남도당 상임 부위원장을 지냈다.

■ 나주시장 후보

		
정당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이름(나이)	강인규(63)	김대동(72)
경력	현 나주시장	전 나주시장
주요 공약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건설 대학병원 수준 선진 의료시 실 유치 국립 어린이집 비율 40% 확대 공공급식에서 GMO 퇴출 200호 청년주택 조성사업	마한역사문화엑스포 개최 공유원 정치적 중립성 확보 정당한 나주 건설 혁신도시와 연계 구도심 발전 열병합 발전소-LG공장 확장 문제 시민 이익에 부합하도록 처리

립해 육아 보육을 돕는다는 내용의 공약도 마련했다.

광주시에 나주 로컬푸드직매장을 2개 신설하고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에 맞서는 평화당 김대동 후보는 “낙후한 나주를 발전시킬 책임자”라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나주시 행정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바로잡고 시장의 버팀목이 돼 공무원들이 흔들림없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장점으로는 풍부한 인맥과 경륜을 내세우고 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장회의의 중심 인물로서 빛가람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구도심은 문화권 복원을 통해 문화수도 나주를 만들 수 있도록 영산강 마한 역사문화 엑스포를 개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열병합 발전소 문제와 LG공장 확장 문제는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감안해 해결 방법을 찾아 내겠다고 약속했다.

혁신도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영산강과 나주평야의 역사·문화를 4차산업에 융복합시켜 경쟁력 있는 먹거리와 부를 창출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 후보는 “혁신도시와 예산 1조원시대 나주를 감당할 수 있는 인물 중심의 선거가 돼야 한다”며 “시장선거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지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는 호소도 빼놓지 않았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혁신교육감 단일후보에 최영태 교수

광주 장휘국-이정선-최영태 대결

전남 고석규-오인성-장석웅 3파전

광주지역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가 뽑은 혁신교육감 단일후보에 최영태(64) 전남대 교수가 선출됐다.

이로써 광주시교육감 선거는 현 장휘국(68) 교육감, 이정선(59) 전 광주교대 총장, 최영태 전남대 교수 간 3파 대결로 굳어졌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광주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 혁신교육감 시민경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5일 시민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5대5 비율로 합산해 최 교수를 단일후보로 결정했다.

경선에는 최 교수와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의 정호근(65) 전 광주시의원이 참여했다. 여론조사와 시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후보들의 합의와 선거법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추진위는 최영태 단일후보를 중심으로 공동선거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새로 꾸려질 최영태 혁신교육감 후보 공동캠프는 광주시교육청의 사결정 시스템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해 오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현 장휘국 교육감은 추진위로부터 시민경선 참여를 제안받았으나 거절했고, 이정선 전 총장은 경선에 참여했다가 경선 룰 협의 과정에서 이탈했다.

최영태 단일후보 확정에 따라 광주시교육감 선거는 현 장 교육감과 이정선 전 총장 간 3파 대결



최영태 후보

로 굳어졌다.

3선 도전에 나선 장휘국 현 교육감의 지지세가 견고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영태 후보와 이정선 후보 간 연대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나 최 후보는 “성향이나 추구하는 정책이 달라 보인다. 현재로서는 이 후보와의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감 선거는 고석규(61·목포대 전 총장)에미후보, 오인성(62·전 나주교육장)에미후보, 장석웅(63·전 전교조 위원장) 예비후보 3파 대결로 치러진다.

고 후보는 문재인 대선후보 정책공약 국민성장 교육팀장으로 교육정책을 개발해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대통령 및 민주당과의 끈끈한 관계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오 후보는 전남에서 초등학교 교사부터 교감, 교장, 장학사, 교육장까지 두루 역임한 점을 강조하면서 ‘전남 교육현장 구석구석을 경험해 통해 꿰뚫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해직교사 출신의 장석웅 후보는 전남지역 380개 시민사회단체와 전남도민들이 참여한 경선에 서 뽑힌 ‘전남 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광역의원 2명 선출...도의원·공무원 출신 등 다양

■ 전남도의원(나주시)

나주는 전남도의원을 2명 뽑는다. 제 1선거구에는 남평읍,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금전면, 산포면, 다도면, 송월동, 금남동, 성북동이, 제 2선거구에는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봉황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빛가람동이 묶인다.

민주당은 제 1선거구에 이민준(54) 현 전남도의원, 제 2선거구에 최명수(60) 전 나주시 기획예산실장을 공천했다.

민주평화당은 제 1선거구에 최승현(51) 전 사회복지법인 행복한 복지재단 이사를 내세웠다. 제 2

■ 나주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이민준(54·민·현 전남도의원)
	최승현(51·평·전 행복한 복지재단 이사)
제2선거구	최명수(60·민·전 나주시 기획예산실장)
	김옥기(59·무·현 전남도의원)

민=더불어민주당, 평=민주평화당 (5월7일 현재)

선거구에는 재선의 김옥기(59) 현 전남도의원도 무소속 입후보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광주구청장 후보

임우진, 민주당 서대석 후보에 ‘공명선거 실천’ 제안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 무소속 예비 후보가 7일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서대석 후보에게 ‘공명선거 실천’을 제안했다.

임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아무나 공천해도 당선 된다’는 오만한 형태는 이번 선거를 통해 서구 주민과 함께 혁신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법 타락 선거 보다는 깨끗하고, 합법적이고, 상호 비방하

지 않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서구 주민들에게 심판을 받는 민주적 공명선거를 함께 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선의의 경쟁을 지지해 준 서구 주민에게 보답해 드릴 것이며, 모두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만들자”면서 “훌륭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정직하게 추진할 후보가 서구민의 선택 받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우 “노후의 삶이 편안한 고령친화선도도시 조성”



김영우 바른미래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동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선도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동구의 고령화 비율이 이미 21.89%에 도달했지만, 아직까지 동구의 고령화에 대한 정책은 미흡하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

구에 고령친화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3개년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동구외곽 플러스 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고령정책을 완성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고령친화선도도시 조성을 통해 머물고 싶은 동구, 노후의 삶이 편안한 동구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동구의 환경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의원 후보

문태환, 제3 노인복지타운 광산구 건립 등 노인 정책 발표



문태환 민주평화당 지방선거 광주시의원 후보는 7일 어버이 날을 앞두고 노인 정책 ‘어르신,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발표했다.

문 후보는 ▲제3의 노인복지타운 광산구 건립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보육 시설 청소 관리, 사회복지시설 조리 보조원 파견) ▲독거노인 공동거주 제도 도입 ▲미등록 경로당

양성화 ▲경로당 지원 확대 등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기대수명이 80세를 웃돌고 있지만 정작 정년은 60세로 한정되면서 노인빈곤율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의 청소 관리나 사회복지시설의 조리 보조원 등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복지 수요에 투입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66주년

2018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남원창극

춘향만리

春香萬里

2018. 5. 5 ~ 9. 29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춘향테마파크 관아(동헌) 관람료 무료

5. 19 ~ 21 춘향제 특별공연

주최 | 전라북도 문화재단, 남원시

주관 | 남원시립국악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민국문화예술위원회

예매처 |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1544-1555

공연문의 | 063-620-6167, 5583